발행인 박 남 음
주 간 단 수 산
편집장 김 호 식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학 보 사
주변번호 131
TEL ☎ 3751(직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270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 우편물 인가)
(허가 번호 제라253호)

1972년 7월16일 발행
제 169 호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문좃선

하기방학을 맞이하여 월빈 교정연별별 학생들만이 적엽하는때 양빈훈씨해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어름화성그림을을 만지하고 있다. 모든 동물이 모때를 그리워 하듯이, 인간도변파림 환경에선 변화 이전의 환경을그리워하게 마련, 긴 하기방학도중 지만, 일이중만 보지못할 친구들의 모습이 한결 눈에 선하, 별별 친구들이모이는 곳에선 오랜 1학기 중안의 생활로굳피후기도…

유효적절한 방학계획

사설

I

지난 6일로써 막을 내린 하기말고사와 함께 사실상 1학기의 전과정이 막을 내리고 50여일에 걸친 하기방학을 맞이했다. 고은나슬 (高溫多濕) 한 기후의 탓으로 7, 8월에 걸쳐 장의를 떠나 학생들에게 특자력인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1학기에 체득한 학업보아를 재검토하고 다가오는 2학기에 대비할 준비를 잘습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분명하다.

우리들이 보낼 지난 한 학기는 이유야 어떻든 조용하고 알찬 학업의 연속이었다. 계절병처럼 유행되어온 대학의 술렁임도 싱은듯이 가시고 오랜만에 대학다운 대학으로써 대학 본연의 자세하고 할 수 있는 연구와 면학과 수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진정 상상할 (요구)도 이나 바람직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대학다운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도록 방국과 학생이 서로 이해와 노력을 기우울다야 할 것으로 믿는다.

비록 방학을 맞아 장의는 심시되고 있진 않더라도 대학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구성원인 학생들의 활동이 캠퍼스란 한정된 지역내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 뿐, 대학은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사회의 엘리트로써 두지와 빈곤이 만연 (蔓延) 하는 산간벽지, 농어촌을 일계우고 등논에 그들의 정성과 시간을 바쳐기며 계몽, 봉사활동을 하는가하면 고대서클은 서울나름으로 밴버섭트레이닝, 수련대회등을 열어 단체생활에서 단결심, 인내심을 배양하는등 갖가지 유익한 활동을 방학간중에 벌려나가고 있다.

그렇기하면 가령도는 도서관에서 더러를 잎고 책과 싸우며 자신의 심령배양에 어념이 없이 곤갈기게 노력하는 학생이있다. 이렇듯 대학생의 하기방학중의 활동은 타양하며 상당기간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때문에 갖가지 경험을 통해 타방면의 지식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은 그들이 대학생이기에 대해 가치있는 일이요, 최고 지성인이기에 기대하는 바 자못 큰 것이라할 수 있다.

II

방학은 장의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교수들에게는 조용히 연구하며 앞으로의 장의에 대비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선 전공과목에 대해 충분한 심력을쏟고 부족한 과목의 보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방학때가 되면 오래된 권련을 떨도는 애기들이진다 낭퍼해로 실행한다는 것은 슬퍼할 서운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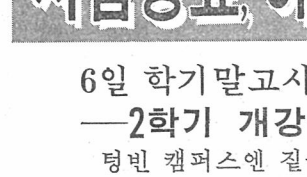
무엇고 긴여름이되면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피서지 (괄폭지) 와 어름의 낭만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음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공지 (周任) 하고 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고생하며 지내기에 힘든 계절임은 사실이다. 삼복 (三伏) 찌는 더위속에서 목욕히 책상앞에 붙어 지내기란 그리쉽게 되는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상하 갖갖아 바라봤아 다나는 것은 역시 세월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이렇게 무절제한 생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가지 자기나름대로의 무리없는 계획하에 생활하며 자기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간이 필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무리한 계획은 결때로 관둘이다. 모처럼의 좋은 휴도 (度圖) 도 신경가동성이 퇴박한 무리한 계획으로 그르치는 수가 생다하다.

하기방학이끝나 다시 입굴을 마주대할때에는 심속 있고 건장한 모습으로 2학기를 맞는 우리 대학인의 자세에서 굳굳하고 힘찬 작도를 엿볼수 있기를 희망한다.

시험종료, 하기방학 시작

6일 학기말고사 일제히 끝나고
—2학기 개강일은 9월1일—
텅빈 캠퍼스엔 짙푸른 녹음만이 무성



<학기말 고사를끝낸 학생들의 마음은 요모하기만하다>

'학기말 고사가 끝난 캠퍼스는 온 종일 들 떠 있었다. 어년보다 1주일가량 빠르게 실시된 1학기말고사결과로 7일부터 본격화된 여름방학에 접어들어 사실상 72학년도 제1학기 과정은 끝남이 된 것이다.

이날 학교 주변 곳곳에서 낭 즐거움과 아쉬움이 교차되고 있었다.

교무처에서 밝힌바 바에의하면 하기 방학중에 있을 학사일정으로 13일부터 썸머스쿨이 개장되어 29일까지 계속되며 72학년도제 2 학기 개학일은 8월21일인데 등록기간은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이며 학생들은 사무처에서 등록금을지불 받아 제입은영 종교학김에 등록금을 납부 것이며 수강신청은 1·2학년은 8월 30일에, 3·4학년은 31일에 하여야 한다.

▲후기졸업식

한편 71학년도 후기졸업식은 8월25일 거행될 예정이며 후기 졸업대상자는 36명이라고 한다.

또한 2학기 개강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밝혔다.

무역른 제5집 발간

본대학 무역학과에서는 무역론 제5집을 지난22일 발간했다.

이번 제부뮈 제5집에는 임태포교수의 「미국의 대 중공교역과 한국의 입장」 에대한 논문과 윤희태 (무·4) 군의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구조와 한계점 개선책」 이라는 제하의 논문등 14개의학술논문이 실려있다.

하기 봉사대 출발
경기도 연천군에 31명

본대학 하기 봉사대는 지난15일 오전 10시 봉사지인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을 향해 출정을 떠났다.

남자21명, 여자10명으로 조직된 이번하기 봉사대는 25일까지 열흘동안 봉사활동 실시하리라 하는데, 주림활동내용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 근로봉사, 의료사업 (약품공급) , 부녀자 상담일간 학교 설치, 4H클럽활동 촉진, 주민 위안의밤 등이다. 한편, 연합 봉사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귀향자들은 농어민의 의욕과 농어촌 시찰 기증해준 미8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드리후, 감사의 기념품을 증정했는데, 미8군에서 기증한 도서들 : 신간 소설등들이었다.

미8군도서기증

지난 12일 오후1시 미8군 도서관 사서장 Sara Lindsay 씨가 본교를 예방, 박학성보 도서관 사서장과에 석하여 환담을 나눴다.

이날 박학장은 지난번 본교 도서관에 400 여권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이 봉사활동은지역단위의 귀향 대학생들이면조, 봉사반을 조직 근로봉사활동을 자진 전개하여 심한 기량 8월30일까지 학생처로 우송하면 우수자에는 장학금이나 기념의 시상이 있다고 한다.

썸머 스쿨 개강
—등록율 36%의 부진속에

72학년도 여름학교가 13일 개강되었다.

지난 4일 대상자를 공고 10일 마감한 이번 여름학교에는 수강 대상자 1,355명중 491명만이 등록, 36%의 부진한 등록율을 나타내 주었는데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름학교의 필요성에 대한회의적 태도와 참중하는 대상자수에 대한 의아심과 비싼 등록금에 대한 반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대상자가 전과의 80%를 차지하는 등 대상자선정에 어긴가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데 이는 교양과목의 교수가 대부분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무역대학원입시 조신권·육영호 수석

72학년도 무역대학원 후기 신입생 합격자 명단이 6월 28일 오후 2시 발표되었다.

이번 입학시험에서 조신권 (도이취과졸) 군과 육영호군이 공동수석의 영광을 차지해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외대합창단창단

대학생의 벗과 낭만을 아름다운 음률에 담기위한 외대합창단이 지난 7월1일 창단식을 가졌다.

본합창단은 유지감회음을 중심으로 하여 최창기 (러·3) 군을 지휘자, 한창권 (정의·3) 군을 부지휘자로 구성되었는데, 양호 여상만 32명을 필원 넘어선 48명의단원을 가지게 되었다.

너클포어 부문우승
조정부, 전국하계 조정대회에서

본 대학 조정부는 지난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춘천 소양호에서 열린 전국하계 조정대회에서 너클포어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했마만 7월초순경에 벌여지는 조정대회표시 이번 대회에는 각 대학의 조정부들이 하기방고사일계로 대회를 포기한 팀이 많아 5개팀만이 참가하였는데 본대학 조정부는 너클포어부문에서 우승과 3위, 에이트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여 개가를 올렸다. 그런데 셀포어부문에서는 동하지않음 불상사로 결승진출에서 탈락되었다.

조정부원게자는 하기방학을 맞아 14일부터 보름간의 계획으로 한강에서 1차합숙훈련을 실시하며 2차훈련을 8월초순부터 실시하리라고, 함께 이는 오는가을의 각종 대회를 위해 철저한 훈련을 쌓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6월 본 대학에서도 여자조정부가 창설되어 가을대회부터 출전하리라 하는데 여자조정부선수를 추가 모집한다고 한다.

<춘천 소양호에서 연습중인 조정부>

무료 공개강좌 없어져
학생 강사 자질과 교재대에 잡음섞여

매년 하계, 동계 각 교과에 걸쳐 실시되었던 본대학 특수, 외국어의 무료공개강좌가 이번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학생처에서 발린바에 의하면 중요한 이유로 강사진의 자질문제, 강사와 수강생들 사이의 교재대 불편화등등 몇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일반및 학생들의 많은 찬심속에 진행되어온 무료공개강좌의 유산은 찬심있는 학생들에게 무언가 석연치않은 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무료공개강좌는 지난 70년부터 심시, 중국어 일본어, 에스페라어, 러시아어 보트무갈어, 이탈리아어등 약 5, 6개 특수외국어를강좌, 일반및 학생에게 노인및 어린이들도 있어 수강생들은 항상 이제론 미어왔다.

한편 각학과 3, 4학년들 본 강사진은 구성, 심시되던 본 강좌심시에 대한 광고가 없자 찬심있는 타대학생들도부터 문의전화가 세도하고 있다.

교지제7집발간

지난 20일 오전 진통끝에 교지 〃의대 〃제7집이 발간되었다.

23일부터 종학생회실에서 일반학생들에게 배부될 이번제7집은 특집으로 세계문학의 제전과 타임화시대와 한국을 다루고 대학문화의 현실에대한 좌담회등 다채로운 편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교지 제7집발간을 위해 종학생회에서는 작년12월 편집진을 구성, 2월말간계정이었고나 편집진의 일부 경질로 지난20일 발간됨 것이다.

도서관 방학중 개방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점차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대학 도서관은 이번 하기방학중에도 제2월합심을 중전과 같이 개방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슬도—라이브러리에서도 오전9시에서 오후3시까지 방학중 계속 개방한다.

○…여학생휴게실에 새로 들어온 코너의자와 동근의자는 휴사 모 (某) 다방을 연상케하여 아닌한 보이기커녕 유있으나, 밤실시가 되면 휴게실에, 커텐이 방가져 아주편한, 데준대나 휴게실 옆에서는 신속공사가 한창중이고…

새학기에는 새로운 여학생회 주인과 대불어 새로운 커텐으로 휴게실이 더욱 밝아질 것을 겉 (乞) 기대하는 바이오.

○…요즘 일간신문을들춰보면대학생들의 출석율이 항상되었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물론 외려도 아니어서 세학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도서관에 년에 비하면 대단한 발전이다.

그런데 열람실책상에 마멸어진 노트 한 권으로 자리를 점령하고는 신 찬상 잔디에 앉아 도키자루 색는 글 모르고 노닥거리는 학생들 려지않으니 어찌 통탄치 않겠음니가…

○…어른학교에 방문리 4전학의 영 (英)학) 을 치지한 학생의 년 (學) 을 묻으니.

『신축교사의 립삼 공사소리에 놀랜나머지 장의시간에는 새 교사운동에 정신팔리으로 잘여졌고, 이제는 이교 (愛校) 심에불타 하숙비를 동생투자했다네…』 금세울시다. 수구를 위한 애교심인지.

썸머스쿨 본래 「정리」에 맞게하여 학생들 반감없는 「평화」유지되어지, 공연히 사업많은 투자금 헛된 「장조」 실에피해보지않게 되길 바랄 뿐이요.

○…『소심고 의양간고리다』 라는 속담속에 숨겨진 평범한리, 비고는 말 부보다는 부주의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리리를 주슬함은 어떨지…』

기말시험이 끝나고 자풍피으로 하기 방학, 역설보면 그 무엇에서 해방감을맛보기 보다는 1학기생활을 평가해 점의도 실은데….

건강을 위한 체력 단련도 좋지만 장죽의 자아발견을 위한 토해를 하기방학을기해 마련해 보심의 여하?

○…○○아 축하한다! 너는 바쁠 때가 없구나, 썸머스쿨 대상자 명단이 발표된지 불과 몇시간만에 광고판을 만신창이가 됐으며, 자기이름을 지우느라 야단법석.

그런데 대상자명단은 항상 학번과, 이름이 주로에 발표돼, 모여학생 함, 부로 [illegible]되지도 못한 이름이 그렇게 공개되는 것은 인권무시가 아니냐고 항분이 대단했으며, 여성인권운동이라도 벌여야 겠다고 기렌다.

○…방학중 개설되면 특수외국어 무료공개강좌가 폐지되자 찬심있는 일반인들의 문의전화가 세도. 기자들을 아연케 하고 있는데. 그 전화 내용인즉 외려의 학생들 갈증 필요가 전 없지 않느냐고, 일침을 놓기도.

그런데 심상 학내외의 문제 (?) 로 무료공개 강좌가 폐지되었다지만, 폐지된 후 얻는 것과 잃는 것의 비중은 어느 쪽이 클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명한 사실.

이문 Chronicle

1972학년도후기
한국 외국어대학 대학원
남·녀 신임생모집 요항

1. 모집학과및 모집인원
(가) 석사학위 과정
영어과, 프랑스어과, 독어과, 중동지역연구학과, 남미지역연구학과, 동구지역연구학과, 정치외교학과, 무역학과
(나) 박사학위 과정
영어과, 프랑스어과, 독어과, 국제관계연구학과
(다) 각과 약간명

2. 응모자격
(가) 석사학위 과정
①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② 4년제 대학에서 다른 부문을 전공한 자도 응시할수 있음
단, 입학후 본대학원 지정 학과목을 이수해야함
(나) 박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3. 시험과목
석사학위 과정이나 박사학위 과정에 있어 시험과목은 동일하나 출제전도의 차이로구분됨
(가) 영어과, 프랑스어과, 독어취과
① 전공국어 ② 전공과목(전공어학 또는 문학)
③ 제2외국어(프랑스어과와 독어취과 지원자는 영어, 영어과 지원자는 프랑스어, 중국어, 독어취, 러시아어, 에스페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타이어, 베트남어중에서 학과목)
④ 구술시험
(나) 아주지역연구학과, 남미지역연구학과, 아랍·중동지역연구학과, 동구지역 연구학과
① 전공과목(정치학 또는 경제학)
② 제2외국어(프랑스어, 중국어, 독어취, 러시아어, 에스페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타이어, 베트남어중에서 학과목)
③ 구술시험
(다) 정치외교학과
① 영어 ② 전공과목(정치학)
③ 제2외국어(프랑스어, 중국어, 독어취, 러시아어, 에스페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타이어, 베트남어중에서 학과목)
④ 구술시험
(라) 무역학과
① 영어 ② 전공과목(경제학 또는 경영학)
③ 제2외국어(프랑스어, 중국어, 독어취, 러시아어, 에스페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타이어, 베트남어중에서 학과목)
④ 구술시험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대학원소정양식) ……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라)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4매

5. 지원서 교부및 접수기간
(가) 지원서 교부기간=1972년8월1일부터
(나) 지원서 교부및 접수기간=1972년8월10일부터—19일까지
(다) 지원서 교부및 접수=본 대학원 교학과

6. 시험일자및 장소
1972년8월23일(수)오전10시부터 본대학원

7. 합격자발표
1972년8월25일(금)오후2시

8. 지원서대금·수험료
(가) 지원서대금: 800원 (나) 수험료: 3,000원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대학 대학원으로 문의할것

1972년8월 일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인쇄: 오부영사 48-4-7 전화 ☎ 0135-9

언어의 기원에 대하여

<교양과정부·국어담당> 남 성 우

서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도 그 진어겨나 짐라고 믿다. 이와 같이 많은 언어는 그 언원을 어디에두고 있는 것일까?

1886년에 창립된 프랑스의 「언어학회」(La Societe de Linguistique) 는 이 문제에 대해 절대금지령을내렸다. 최치 제2조에 「본회는 언어의 기원이라든지 세계어의창조에 관한 어떤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정이있다. 이는 과학적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호사가를 경계하는말이다.

언어의 기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제 나름의주장을 개진했지만, 노력에비해 성과는 너무도 적었다고Whitney는말했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두 개의 난점이 있다. 하나는 자료의 빈곤이요, 다른 하나는 이성의 언어에의 밀접한 의존관계 (intimate dependence of reason on speech) 다.

이 문제는 아직도 의문에 싸여 있고, 여기에는경설이 없다. 본소고의 목적은 어려주장과 학설을 소개하는데 있다.

Ⅰ. 신의 창조설

창세기 2장에 동물들의 명명에 관한 흥미있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어 아담이 명명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그들을 아담에게 데려 오셨다. 아담이 모든 생물을무어라고 부르는지 그것은그들의 이름이었다. 그리고아담은 모든 가축에게 공중의 새에게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하였다……」

신의 창조 이념에 따라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군림하게 되었고 또 모든생물을 명명했다.

이런 과정은 아이들의언어습득시에서도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주위의 물품에 대해 막연히이고 명확한 음을 내면 어버이는그것을 물품의 명칭으로 인지한다.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 이야기가 있다. 온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있었는데, 바벨탑 건립시 사람들의 수다 때문에 일이 진척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서로 이해할수 없도록 사람들의 언어를 바르게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설은 언어기원에 관한 최고의 기록이라 할수 있는 성서에 나타나 있다.

Ⅱ. 멍멍설 (bow-wow theory)

일명 의성설 (onomatopoeic theory) 이라고도 한다. 언어의 기원이 자연음을 모방하는데 있다는 설이다. 예컨대 quack-quack, tick-tack, cuckoo등.

일찍이 의성어가 유연성 (motivation) 을 가졌다고 피한 철학자들은 많았다. 그래서음성상 즉 음성학유연성에서 어연와 사물의필연적 연관성이주장되었다.

막스뮐러…감탄사가 언어로 발전

다음절어는 점차단음화하는경향

이성의 개입·기원구명의난점

연애의 정서,음악발생을 촉진

몸짓은 언어의 원숙과함께 사라져……

입,혀등은 무의식적으로 몸짓모방

Sayce도 많은 어휘가 의성적 기원에서 생긴다고주장했다.

Renan은 이 설을 반대하였다. 언어적 순서를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있었는데, 바벨탑 건립시 사람들의 수다 때문에 일이 진척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서로 이해할수 없도록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했다는 것이다.

Ⅲ. 푸우푸우설 (pooh-pooh theory)

6·0언어가 공포 경악 혐박 연민 고통, 혹은 즐거움에서 생긴 의성어나 감탄사에 유래한다는 설이다. 일명 감탄설 (Interjectional theory) 이라고 한다.

Max Müller는 감탄사가 긁나는 곳에 언어가 시작한다고 했다.

Ⅳ. 딩동설 (ding-dong theory)

이 설은 Max Müller에의해 제창되었는데, 생득설 (nativistic theory) 이라고 한다.

이 설은 소리와 뜻의 대응을 자연법칙 즉 심비스러 조화의 법칙에의해 설명하려고 한다. 「자연계에 뒤 피적인는 법칙이 있으니, 어떤 물체도지 저연슬림다. 모든 물체는 그 체의 울림을 가지고있다. 」 언어는 본능의 결과. 즉 원시시대의 인간에게 복유한능력의 결과인데, 이능력은 「그목적이 합성되었을 때 소멸되었다. 」

치찰음, 중얼거리는 m소리, 유성음 유음, 감탄스럽게 파열음에 의해,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에 음성적으로 적응하였다.

Ⅴ. 요헤호설 (yo-he-ho theory)

Noir.가 주장한 설이다. 그는 언어의 원천을 공동작업에서 구하고 있다. 어기서 원시의 의성어와 성유는 음삽되지 않는다.

<언어는 많다. 진기프현의 수단이지만 발생기원은 뚜렷하지 않다.>

강한 근육활동 특히 음중적 활동은 성문·혀·입술·연구개의 긴밀적 운동을 동반한다. 따서 압전연습을 보냈내기도 하고, 성대를 진동시키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한다. 어기서 heave, back, yum-yum, yo-he-ho, ta-ra-ra-boom-de-ay 같은 말이가생긴다.

이 설은 사회학이다. 한편 위에말한 명명설, 푸우푸우설, 딩동설은 너무개인적이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고려하지않고 있다.

Ⅵ. 몸짓설 (Gesture theory)

인간의 몸짓, 즉, 노래가 언어를 낳은 경중의 복합체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가능하다. 언어가 주립 의사소통 수단이긴 하지만, 네가지 활동의 비교는 매우 주 시사적이수 있다.

몸짓에 의한 의사소통과 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은 진리의 최근 단계에 속한다. 넘게 말하면, 한 시력가 말의 그것 보다 약간 앞선다. 왜냐 하면, 몸짓이 시 모두에게이해할수있다.

몸짓은 아주 먼 기원을 가진,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힘을 가진 의사소통의중요한 한 양식으로 간주되어도 좋다.

6·2 Richard Paget 경의 몸짓설

초기의 인간의언어는 몸짓기초의 언어였다고 말할 수있다. 이야마쉽에 의하면 손에 의해 유사한의 또 는 만들어진 타타를 말하는 뜻인 히는 동일한학스적을 한다. 손에 의해상서 만들어진 몸짓은 인·혀·입술의 운동이나 위치 덕경제의 원칙이 크게 작용한다. 말을하기 힘든 음들이 없어지고, 쉬울 것만이 남게 된다.

또 하나 특기할 사실은 원시 언어에서 고저 Accent 즉 성조 (tone) 의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7·2 문법면에서 종합적이었던 원시언어가 분석의 과정을 밟는다. 또 원시시대의 언어 단위는 현대어의그것에 비해 의미상 더복잡하고 음상상 더 길었음에 틀림없다. 따음절어는 다신고가 일신고화하는것이, 단음절화되었다.

7·3. 말과 노래가 미분화상태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원시시대의 모든말은 노래였음에틀림없다.

이사실은 문학의 기원와일치한다. 시가 산문보다 먼저고, 시적언어가 산문적언어에 선행하고 서정시나백서의노래가 학문의 발달보다 앞섰던것이다.

7·4. 우리는 정서적노래에서 언어의 기원을 찾을수있다. 이생각은 Darwin 이 시사한 것이다.

음악과 노래의 발생을촉진시키는데 가장강력했던정서는 연애였다. 미개인의경우 짐은 남녀는 이성의주목을끌기 위해 수려한노래 끝부분고 춤춤에에 정교하고 섬음스러운 춤을 춘다.

그래서인간의 구애시의첫언술은 지분위에있는 고양이의 발의연가와 밤꾀꼬리의 선음적인 사랑의 노래중간에 위치하는 어떤것일 것이다.

어기서도 언어의 기원을 신고적인 것에서보다 시적인것에서 발견할수가있다.

7·5 위의 진술을 검토·요약하면, 언어의 시초는 수음악적, 비분석적 표현을 사용한 데 있다.

결언

지금까지 일곱 가지 주장에 대해 시술해 왔으나, 어느것 하나 신뢰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언어의 기원 문제가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면서 해결이 지난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velement, Bloomington, 1953
E. H. Sturtevant,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Science, New Haven and London, 1953
J. Vendryes, Le Langage, Paris, 1950

학생논단

일본·러쉬와 국민의식

김 초 해 (일본어과·3)

우리는 오늘날 일본이라는 괴물에대해 꽤 익숙해져 있다. 아시아의 강자 (强者) 를 넘어선 세계의 강자, 그것도 우리 반도와 가장 가까이 근접한 일본에 대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모른다.

일본이란 단어는 그동안 우리에게는 참으로 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학교 여자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날말표부터 오늘 서울 부산등지의 떠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길에까지 흔연지를 날리면서 펄럭는 말속한 넘쳐의 일본상품차에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거리「일본」의 물결이 일고있는 형편이다.

국적을 떠난말속으로 투고있고 낮놓고 그것을 입수있는 사람치고 불구 (部分) 이순신, 시명당, 이동부분, 안중근등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인근해있는 탓으로 해서 수없이 우리들의 입을 오르내렸고 직접 서적을 통하여 익힌다는것은 다른 어느 외국어보다도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선의 (善意) 의 취지에서나온 시책도 「일본」이라는 어감에서생기는 심리적 작용이 우선 의문을품게한다. 일본어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에, 앞서 말한 「일본·러쉬」 현상이 나타나 폭사앞의 가슴을 저미는 안타까움의 분노를 일으키게하였는데 더한 스스로의 반상과 자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박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교 1년생이 일본어학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그들은 과연 입까만한 폭력의식과 외지를 품고 일본어를 대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없다.

우리사회 주변의 체세종조 주방 캠페인이라도 입려 비통사종 (非修飾句) 단어 것이든 우리들의 정신을 세척할것이 중요하며 우리 민족의 의식을 뿌리깊게 심어두지 않으면 안된다. 언어는 정신을 풀들일수 있는 마력을 지니고있다. 순화되지않은 퇴폐적인 것일수록 쉽게 파고들수 있다. 우리는 지금 투철한 민족의식이 필요하다. 일본이란 괴물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다. 역사는 말하고있다. 그들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대동아건설을 일으켰고 세계평화를 위해 제2차 세계전쟁을 일으켰다. 그는 현음종은 정복과 힘 박의식과 대화조 (大和調) 이라는 가공할만한 국민심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기로 했으나 에도라가학교당국의 요구와 자체의에 상했던 폭력이 부합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불참을 표명해 MRA에서 10명, KUSA에서 20명만을 선발해 계획된 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시를의 하기휴가중 동정음상퍼보면 다음과같다.

○…KUSA에서는 방학중 부산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Work Camp (한미 일 중 홍콩) 에 두명을 시킬때 의해 선발해 파견키로 했다고.

○…SCA에서는 전국기독학생회연맹 주최 회원수련대회 (씨포 청년수양관에서) 에 남6명, 여 5명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불교학생회는 수학산 동국사에서 회원수련대회를 갖는데, 전국불교학생회 주최 회원수련대회에는 불참한다고.

○…에도라에서는 하기봉사단 불참을 계기로 독자적인 봉사활동을 구상중이며 9일 음유도에서 회원수련대회를 갖는다.

서클동정

하기휴가를 맞아 작세를 하기봉사활동, 자체 회원의 수련대회등 바이트원 클럽을 세우고 있다.

작 서울이 연합해서 법이는 「외대하기봉사단」에는 원래 KUSA, MRA, 에도라에서 30명을선발해 경기도 연천에서 심어일간노동봉사및 작품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압 법한 가슴부터 시원해질것이요.

오월로 가득한 위장도 깨끗해질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워진 이 몸을 씻기위해서는 가까운장이라도찾아가고싶다. 하지만 조심할것이 있다. 서울근교의 강을 모두 에의없이 버린과 오물로 오염되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밤길을걸으로를려 수도물에라도물을 씻겨. 수도물에서 지명이가 나온적이 있다고개의할것은 없다. 언제 이방에서우리가 그렇게 정결히 지낼수있었느냐.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남아있다 「수도물마저 나와주지 않으니 말이다. 상심하지마라. 이 위험요소들이 내년을 위한 오늘의 희생」입지니…

<태>

하기 서클 활동 유감

서클의 여의활동은 학내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요즈음에서 대학생의 여의활동 즉 서클중심의 활동이 형식에 치우쳐 있으며 내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대학생스스로가 참여활동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하기휴가중 서클활동을 살펴보면, KUSA와 MRA만이 「외대하기봉사단」에 참가하고 있을뿐, 그외 서클은 전례적이고 형식적인 바상에 젖은 자체활동의 수련대회를 형식으로 내세워두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심지 못한 느낌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수련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전체 회원의 일부분에 지나지않으며 수련대회의 내용조차 부풀어설정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하여튼 현시부 (開時部) 를 잡아내볼 때 대학생의 사회활동에의 적극참여가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되고 있는 사실을 명심하여 효율적인 서클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빈의자

우리는 요시이 한참 수술이 진행중인 의자 수술대를 바라 보는고려을 잠수하고 있다.

수술중인 환자의 복부는 온통 뒤집혀져 주란내장 (內臟) 들은그의 자태를 뽐내는 듯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고 기름으로 싸돈있는 수술도구들에서 나오는 희뿌연 연기는 가득이나 흐려져 있는 수술실의 공기를 더한층 흐리게 만들어 놓고 있으며 밖을 붙잡은 이마에 땀까지 솟게하여 모든 찬찬자들을 이려한 수술실을 나가기를 원하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수술을 구상한 입안자 (立案者) 들이야 말을 떠심해주며, 곱뜯장치가 달려있는 문명의 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니 수술중 인곳을 버릴 두드리며 지나갈수 있었지만 시간 (瞬間) 들이야 삶의 것중인 그곳을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만 빠른 시일안에 수술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좁 쑤셔놓은 내장 (內腸) 이 그속에 둘러리트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아프 이고, 이 모든것이 "내일을 위한 오늘의 희생이니 참아라"하는 만마디의 경고로서 위안될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밖은 내일이 있기 위하여서는 내일을 잡혀 졸업을 질 수 있는 굳건한 체력이 필요한 것이지 결근 콘크리트가 더 많다고 밖은 내일을 약속해 주는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결근 콘크리트야 하루 이틀만에 더 만들 수도 있지만 한번 약력진 체력은 단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것이다.

희뿌연 연기로 가득찬 학한 수술실의 공기를 한 숨진의 거림도 없이 폐속으로 한아 들어야하는 우리들의 체력을 더달나위 없이 할 말 (荒涼) 해 질 수 밖에 없다.

악화되는 심내 공기를 정기해 보려는 아랑도 찾지 않을 그들이 역사의 한페이지에서는 근대화의 역군이라고 남겨지는 영광을 차지 하겠지만 후세의 세대는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 줄지는 심히 의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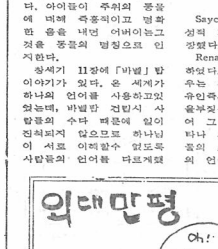
이러한 폐경을 벗어날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방임은 오로지 세월세월는 만일동지 약방에 남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있는 유일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번씩이라한주 한을를의 세척제를 입에 털어넣자. 그렇게 되면 이압 법한 가슴부터 시원해질것이요.

오월로 가득한 위장도 깨끗해질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워진 이 몸을 씻기위해서는 가까운장이라도찾아가고싶다. 하지만 조심할것이 있다. 서울근교의 강을 모두 에의없이 버린과 오물로 오염되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밤길을걸으로를려 수도물에라도물을 씻겨. 수도물에서 지명이가 나온적이 있다고개의할것은 없다. 언제 이방에서우리가 그렇게 정결히 지낼수있었느냐.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남아있다 「수도물마저 나와주지 않으니 말이다. 상심하지마라. 이 위험요소들이 내년을 위한 오늘의 희생」입지니…

<태>

외대만평



이사람 외대다녀요.
난 일본어과란 말야.

프랑스語

Directeur : M. March.oni
프랑스의 言語敎育과 文化普及및 韓佛親善을 目的으로 하는 本 알리앙스·프랑세즈는 다음과같이 開講학을 알려드립니다.
◉開講日 : 1972年 8月 1日(화요일)
◉講義種目 : 1. 語學코—스…Mauger Ⅰ. Ⅱ. Mauger Ⅲ (1과부터)
2. 觀光覺會話…초급 (한등기와영사기 사용)
※本알리앙스·프랑세즈는 주다행태로 每月初에 개강하며 종코—스마다 修了證을 수여함.
알리앙스·프랑세즈
중구묵정동30의 1 (퇴계로5가) 연합빌딩 3·4·5층 TEL 68220

內外타자學院

<상학특강 1개월 完成>
—외대생에게 30%할인, 특히 유학생환영—
★우리學院은 이번에 外務部에 이어 또 강육관청인 文敎部로부터 타자교육을 위촉받아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진보된 교육을 약속합니다
◎개인 별진도표, 책임제 개인지도, 속타비결인쇄물 실무평가<신기및 필기시험>
◎시간 자유선택, 에리베이터, 냉방, 교육감상 수상
<접수중> 종로2가네거리경영빌딩5층 전화㉔4089

1972학년도 부터 외대학보에 병사관계란을 마련하여 병사관계에 의문점이나 알고싶은 사항이 있는 학생은 의문점및 알고 싶은 사항을 과, 학년, 성명을 기재, 매월초 학생처에 제출하면 순번적으로 매월 2회씩 외대학보에 실려 학생들의 알고자 하는 사항을 답변하여 드리겠으니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 생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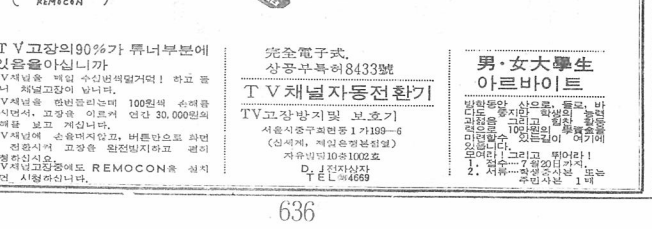
병 무 상 담

1. 일반군사교육 대상자
일반군사교육 과정은 학학 (초급대학을 제외) 과 사범대학의 제1학년내지 3학년 (음악대학은 지휘학과생에는 의과 1학년에 제학하는 자를 말한다) 을 대상으로 한다.
2. 일반군사교육 비 대상자
1) 현역군인
2) 예비역 군인
3) 여학생
4) 미필민역 국적소유 외국에가서영주권을 얻은자
5) 심신장애자 (질병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한 징집면제 또는 병역면제로서 제검을 받지아니하는자)
6) 연말초까로 인하여 학교에비군편성대상자에서 제외된자
3. 학교예비군 통원 및 교육면제
학교예비군 편성대상자인 재학생으로 학생군사교육 심사결에 직학교련을 받고있는 학생은 통원 (방위소집포함) 및 교육면제를 면제한다.
4. 일반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한자에게 대한 특무기간 단축
1) 일반군사교육을 이수한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때에는 그 재영기간을 3월단축한다. 다만 제2학년 과정의 과정을 이수한자는 2월을, 제1학년의 과정을 이수한자는 1월을 각각 단축한다.
2) 일반군사교육을 이수한자가 군번부여, 의무과, 군종장교등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영기간을 이수한때에 따라 단축한다.
3) 일반군사교육과정을이수한학교서 보충역에 편입되지에 대하여는 교육소집을 마친것으로 본다.
5. 가사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및 입영연기
1. 다음사항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및입영을 연기할수 있다.
가. 형인이 아니면 가족 (동일호적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자) 의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자
나. 가족중에서 2인이상이 중식에 재영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수없는자중 1인
다. 2명이상의 독자 또는 인척중 1인의 전사로인하여 독자가됨자
라. 부친 방의 독자 또는부모가 60세 이상인독자
마. 부친및 형제중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는 때의 1인
2. 가. 나. 다. 라. 마. 사유해당자는 23세를, 바. 마 사유해당자는 21세를 한도로 그사유가 끝나는 자는 그해 또는그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한다. 다만 그 체한년이지나도 사유가 계속하는자는 그해 또는 그 다음해에징병검사를 받게하고 면역에 해당하더라도 또는 중으로 판정됨 경우에는징병검사를 연기한다.
3. 재학생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한자가 그 사유가 끝나 후가사사정에 의한 연기사유 직당자는 1년을 징병검사를 연기할수 있다.

<학 생 처 장>

회원모집

젊은이의 낭만을 지리산의 녹음에서 찾아 보시지 않으시겠읍니까?
◇본회에서는 72년도 하기 지리산 등반을 맞이하여 신입회원을 모집코저 하오니 外大生여러분의 많은加入있으시길 바랍니다
期 間: 7월10~8월10
接受處: 好山莊 전화㉔9904
(조흥은행 본점옆 삼일고기도로입구)
韓國雪嶺山岳會



◎TV고장의90%가 튜너부분에 있음을아십니까
☆TV채널을 매일 수십번씩돌거덕! 하고 돌리니 채널고장이 납니다.
☆TV채널을 한번돌리는데 100원씩 손해를 보시면서, 고장을 이르러 만큼 30,000원의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TV채널고장을 없애며 버튼만으로 화면을 전환시켜 고장을 완전방지하고 평히 시청합시시요.
☆TV채널고장을에도 REMOCON을 설치하면 시청하십니다.
完全電子式.
상공부특허8433號
TV채널자동전환기
TV고장방지및 보호기
서울시중구회현동1가199-6
(신시계, 제일증권본점옆)
자유빌딩10층1002호
D. J 전파사지
TEL ㉔4669

男·女大學生
아르바이트
밤낮없이 (삼으로, 돌고, 바도 동지한 학생회 능력과정을 그리고 월급 한달 100원의 활동을 마련할수 있는길이 여기에 있읍니다.
문의처! 그리고 뛰어라!
1. 접수—7월20日까지.
2. 서류—학생증사본 또는 공민사본 1매

7·4 남북공동성명과 대학생의 자세

남 재 희
<서울신문편집국장>

—인내…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안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듣고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고르디언·노트」(Gorelian knot) 한 덩어리였다. 「고르디언·노트」를 마침내 잘도잘단 (一刀兩斷) 하였구나……하고 느꼈다. 그리고 말할수없는쾌감이 온몸을 찌릿하게 하였다. 답답하기만 한테에슬구렁이 몸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것 같았다.

「고르디언·노트」란 말 알려진 서양의 고사 (故事) 에서 유래된 말. 「프리지아」 라는 낙이름 나라의「고르디우스」왕이 손 심술이 궂었던지 아무리해도 풀리지않는 매듭을 매놓았다. 그리고 그 매듭을 푸는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식의 탁선 (託宣) 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많은사람들이 「아시아」의 왕이되려고 그 매듭을 풀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 매듭을 아무리해도 풀리지 않도록 매여져있는것이기에 모두들 허탕만 쳤었다.

그와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퇴기원이다) 은 「고르디언·노트」를 찾아가 남몰래칼 그것을 풀으려고해 쓰지 않고 칼을 빼어 일도양단 (一刀兩斷) 해버렸다 아무튼 칼기는 풀을것이다, 그후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아」를 정복하여 매우든 왕국을 이룰수있었다는 것인데 『「알렉보스」의 발칸』같은 이야기라고나 할까.

남북의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또 북북의 부수상 박성철이 서울까지 오고하여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기까지 에를 들어보면, 북북의 접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란 또는 법치질단일뿐이다. 엄격한 법체적상은 그 밖다. 반란 또는 법치질단과 어떻게 외교적인 대화를 찾을수있느냐하는 장애가 불 필요하게 되었다.

대화의 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명분·이념 법제등등의 장벽——이러한 「딜렘마」를 해결한것이, 해결의 돌파구를 뚫었이남북공동성명이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요즘 한참한심을 모으고있는 「닉슨」 대통령의 안보문제 특별보좌관 키신저 박사가 북경에 간경 (密行) 하였 이후다중앙정보부장도 평양에 간줄알었다.

이런바 「키신저·스타일」은 매우 괜리하고 효과적이다.

첫째, 명분과 이념과 법제등등이 얽혀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정세에 나서지않고 중앙정보부장이 나선지도모르는것이다.

둘째, 「비밀외교」이는 때 보수적이고 정치한 닉슨 대통령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중앙정보부장이 나선지도모르는것이다.

셋째, 「키신저·스타일」은 매우 괜리하고 효과적이다.

이러바 「키신저·스타일」은 「키신저」 박사가 나서지 않고 국무장에 만겨미리면 점된 시간이 걸린다 것이다. 일러면 일본인주미외한중인 (重鎭) 을 만났더니그는 일본이는 「키신저」 의같은 수상보좌관제도가 없고 모든것을 외무성에만 맡기고있어 일본과 중공간의관계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불평이였다. 전적으로그렇지는 않으나 일리 (一理) 있는 이야기 였다.

셋째로 「키신저·스타일」은 일체한 비밀외교이므로 중정에 신속성이 있어서좋다. 외교는 공개외교가 마땅하다고는 하지만 공개외교교섭경주는 그 공개성 (公開性) 때문에 박박해져 중정이 제대로 되기어렵다. 비밀외교는 비록 심체합마고 해도 「리스크」가 적으므로 점은 신속자재 (伸縮自在) 하다.

이와같이 분명 남북간의 단절을 좁과함에있어서 「키신저·스타일」을 택한것은 매우 현명했다고 보여지는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남북공동성명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개를 살펴보자.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은후자 상치이고 쉽마간 애매한것이 채택이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다.

첫째, 남북은 그동안 통일문제를 두고 매우 상반 (相反) 된 주장을 내세워 왔었다. 거의 정반대되다시피한 주장을 맞세워온 쌍방이 공동성명을 내기위해서는 상반되 주장에 공통된 공준분모 (共通分母) 만을 추린게 된다는 것은 어쩔수없는 일이다.

쌍방 모두가 중년이 만족할수는 없으나 그런대로 양해할수있는 그런 합의만이다. 그런 이유에서 공동성명의 많은 귀절들은 추상적이거나 애매할수밖에없도록 되어있다.

둘째로, 좀 자도를 달리해서 생각해보면 중년이 남북간의 접촉을 시작이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수있다. 공식 (公式) 적 (的) 인 「루트」를 통합대고 라는 복잡한 문제는 거의 생기지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의 국감린이나 동일원장관이로부 찾는것이므로 「루트크레트」가 아닌 대통령의 측근 심려자가 직접 문제를 비밀고 나서는것이 효과적이다. 미국과 중공의 정우 「고르디언·노트」를 풀은 명쾌한 처사

<7·4쇼크는 분명 고르디언·노트를 풀어헤친 쾌단이었다. 은근민이 놀랐고 특히 젊은 대학생에게 주는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것 이었다.>

젊은이들 여론 신중 기할시기
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 재확인 필요
대학생정열로 포용자세 갖춰야

「키신저 스타일」 비밀외교가 주효한듯

「고르디언·노트」를 푼 명쾌한 처사

소련및 중국문제연구소는 1972년 1월, 본격적 신한 2호에 그 사무실을 두고비서와서장 중심수가 초대 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집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금번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소련및 중국공산제국에 대한 연구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 개설된연구소는

①정기 간행물 및 도서의 발행

②연구발표 및 강연회의 개최

③특수연구계획에 대한연구비 보조

④소련및 중국제국에 관한 연구자료, 학술논문, 서적의 번역

⑤부속 도서관의 설치및 그 운영

⑥저명 외국인사의 초청 및 소련의 해외파견 등을 그 소요 사업으로 하고있으며 설립기간은 영원 (永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몇 개 부처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 받아 전 연구원이 밤낮없는 여름을 보내어야만 할 것 같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도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미·일·중과 함께 제정러시아 때부터 한반도와 관계를 맺어 왔었으나 그 말에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러시아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 나라가 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러시아에 대한 연구도 자연 소원 해지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산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에나마 본교에 「소련및 중국문제연구소」의 설립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산주의와 직접 맞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며 시기에 알맞는 조치라 아니 할 수없다.

특히 본 연구소는 국내의 다른 공산권문제연구소와는 달리 지역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 할 수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좀 더 깊이 있고체계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데 이러한 학부의 러시아어과와 대학원의 중국어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에 이르러 본교에 「소련및 중국문제연구소」의 설립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산주의와 직접 맞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며 시기에 알맞는 조치라 아니 할 수없다.

특히 본 연구소는 국내의 다른 공산권문제연구소와는 달리 지역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 할 수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좀 더 깊이 있고체계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데 이러한 학부의 러시아어과와 대학원의 중국어 연구는 동 연구소와상 이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믿는다. 이는 본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동연구소의 출해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방학중에 모두 끝내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연구지도 방장한에 정부의 대소 및 대중국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본연구소의 기구를 살펴보면,

소 장=동 한

상임위원=김학수, 조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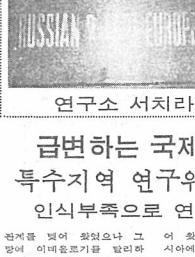
연구위원=김재구 이종인

연구조원=이종택, 임여진

이밖에도 원로과에서 성져에 따라 수시로 교내외의 저명인사들로 연구위원을 위촉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튼 본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고 있는 소련및 중구제국에 관한 연구자료, 학술자료및 서적의번역등은 현재 학계의 많은 관심을 모아 상당한 신뢰를 얻빌수 있으나 아직일 부력인 임시부족 전인지의 를 기대하는 바일 없지 않다. 본연구소는 장상 소련의 최신 인문및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지를 들여와 정확한 번역으로 관심있는 분들에 이바지 할것이다.

본 연구소는 대학의 부설로 본격적인 공산권문제연구기관으로서 학내외의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기대 된다.



연구소 서치라이트 ④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율적대처
특수지역 연구위한 인적자원 확보돼
인식부족으로 연구기피 경향도 보여

본대학 해양훈련소 안내

본 대학 해양훈련장은 중정년도 보험금 대원을 대원해수욕장에 소재하고 있다. 1인여정의 대지위에 하아얀 백사장을 앞에 둔 이곳에는 교수용 냄장 5동과 학생용으로 남학생관 (60여 명수용) 과 여학생관 (25~30명수용) 그리고 방송실과 지도교수실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원 해수욕장은 서해안 갈지의 해수욕장으로 이미 이름나 있는 곳으로 특히 조개껍질이 쌓게 부서져 이룬백사장을 그 황홀함이 단연 다른 해수욕장보다 월등하다.

본 대학 해양훈련장은 중심부분에서부터 700~800m가량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훈련장 앞 백사장은 그리 붐비지 않아서 좋다.

시설로는 석수가 수도시설로 이용되게되어 결리하고 취사장에는 구멍탄불이 항시 준비되어 취사에 도움을 주고있다. 그 밖에 해변가 비취파라솔, 탁구대, 사격장, 배구장등의 시설이 있으나 이용하기에 따라 어느정도의 효과를기 를 수 있지만 그렇게 훌륭한 시설은한리경비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갖추질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는 1주일에 1인당 500원씩의 관리비가 필요할 뿐 심신이어 어려모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에는 Camp fire 장기배꼽놀 잼은이의 광장을 마련, 캠프파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다.

한편 본 대학 홍순재교수가 해양훈련장 지도교수로 있으며 체육선머스를 과 훈련장내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홍 교수는 여름각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방·낮으로 기온변화가 심하므로 체온유지에 유의하여 취사는 식사량의 80%정도 하는것이 좋다. ②여름간에는 특히 해부를 잘 덮고 자도록 함다. ③여름심체는 괴로하기 쉬우니 적당한 음장과 적사방전에 괴한 휴식을 충분히 하도록 할것. ④수영전후 준비운동을 충분 을요수를 제외한 식사전에는 한시간을 경과하여 물에 들어가도록 함다. ⑤수중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소화불량, 경련의 원인이 되니 20~30분 만에 한번씩 해양공전으로 보충할것. ⑥특히 혈압이 높은사람은 과로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기 쉬우니 물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이상의 주의사항을 한상 명심하여 건강한 여름을 지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F. B. S (의매방송국) 에서 편지에 일래방송을 이어서 다른 여느 곳보다 비용이 싸게 먹힌다는 이점이 있고

학내·단신

써클탐방

더 좋은 생활 근거지를 마련해 보려는 인간의 근원김 노력은 무수한 재보와 광대한 터전을 안고 인간과 출입을 왕장리 거부해온 해양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스킨—스쿠버를 탄생 시켰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탄생된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스포츠로서도 차츰을 받기 시작해 본대학에 출입이 결성된것은 69년 3월이었는데, 초창기에는 대륙붕개발이나 잠수등에 관한 이론 습득에 주력하여야 실질적 체육써클로서 동장하게된것은 71년 유국련 (부·2) 군이 제3대 회장직을 맡고 부회로 현재에도 회장직을 맡고있는 유운은 장사자격을 갖고있는 우리나라에 몇몇 진 비태밖이다.

본대학 써클은 여자회원 2명을 포함,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한국 스킨 스쿠버 다이빙협입 산하 대학연맹에 가맹했는데 이 연맹에는 본대학을 비롯, 연대, 고대등 8개 대학이 가맹하고 있다. 지난 71년 8월 이 연맹 주최로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수중 경기대회에서는 본대학팀이 체점부문에 입상한 바도 있다.

본 클럽은 신입회원을 매년 4회에 선발, 4월에는 기초훈련을 여름방학때에는 전지훈련을 9월에는 대외보급을 위한 전시회와 해양소개 영화상영등과 거울방학중에는 동계강화훈련을 테농 심내용에서 찾는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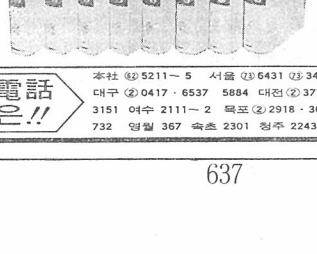
한편, 유희장은 일반학생이 잘못 이해하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매우 힘들고, 경비가 많이 드는 운동으로 착각하고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시급한 보급이 필요하다며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수영능력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수영능력이 고려되는 이유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나, 안일의 사고시 안전을 위한 것으로 수영능력이 없는 사람도 머질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장비도 2,500원 정도면 스킨—다이빙에 필요한 제의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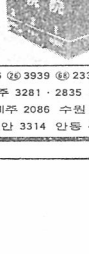
또한, 여성의 별도지인 우리나라 실정과 결코 힘드는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유희장은 써클룸도 없을 뿐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에 필요한 장비는 면회에서 미여해서 사용중이라며 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아쉬워했는데, 학교측은 이러한 미흡의점도 유념한 써클을 접종지원, 단순한 써클로 머물게 하지 말고 우리 학교의 명예를 위해 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현재 학교측에서 받는보조는 훈련대 약 간의 경비보조뿐 시합참가를 위해서는 일체의 보조가 없는 심정이라고 덧붙여 놓으며 앞어서는가에에 결의에 찬 눈길을 보냈다.

學園社의 三大事典! 從前 価格으로 限定 部数 発刊!!

世界大百科事典 全15卷
10여년의 전통을 꾸준히 지켜온
단연 세계적 수준의 大百科事典!
4·6배판 총 10,500면<각권 700면>
100 파운드 특수미색모조지사용, 전면 올셋인쇄
정가<卷当> 4,000원 ● 보급특가<卷当> 3,000 원
1回 配本(1~8권) 6월 10일부터
2回 配本(9~15권) 11월 10일부터
<선착순 6月末日限 보급특가로 9개월에 봉사>

原色 科学大事典 全8卷
드디어 完刊!
●방대한 分量과 内容
●각 분야 책임 執筆
●原色図解 総 800여면
●각권 분책 販売開始
●8개월 月賦로 봉사
普及特価 各卷 3,000원
金 帙 24,000원
4·6배판, 総 4,800面
호화양장, 최신포크로스
100파운드 모조지 使用

1 宇宙 2 地球
3 物理 4 化學
5 動物 6 植物
7 生命 / 人間
8 數學 / 技術

家庭綜合病院 全3卷
100여 명의 의학계 권위가 책임집필한
家庭마다 꼭 必要한 홈·닥터!
●4·6배판 各卷 800面
●100파운드 모조지·호화양장
●全面 2색 옵셋 인쇄
●정가<卷當> 4,000원
<帙當> 12,000원

<일차 내용>
第1卷
第1篇 症勢에 依한 診斷과 對策
第2篇 內 科
第3篇 救急法·家庭看護法
第2卷
第1篇 外 科(癌)
第2篇 小兒科
第3篇 婦人科
第4篇 産 科
第5篇 結婚醫學·老人疾患·其他
第6篇 食餌療法·其他
第3卷
第1篇 居尿器科·性病科
第2篇 皮膚科·皮膚外科
第3篇 耳鼻咽喉科
第4篇 眼 科
第5篇 齒 科
第6篇 精神科
第7篇 放射線醫學·温泉療法
第8篇 産醫學·家族醫學·學校保健
第9篇 社會生活與 保健
第10篇 家由病·家庭常識藥
第11篇 民方醫學·民間療法
<6개월 月賦奉仕!>

株式会社 学園社
至急電話 注文은!!
本社 ⑫5211~5 서울 ⑬6431 ⑬3491 ⑬4824 ⑮3187 ⑬3566 ⑯3939 ⑱2331 ⑮6027 ⑬0603 인천 ②7316 부산 ④2577·1136·1135
대구 ②0417·6537 5884 대전 ②3773 광주 ②0907 0576 진주 3281·2835 마산 4510 울산 3763 김천 10 포항 3396 전주 4774 이리 3151 여수 2111~2 목포 ②2918·3618 김제 162 남원 568 제주 2086 수원 3844 의정부 2879 춘천 2650 원주 3158 강릉 3220 삼척 732 영월 367 속초 2301 청주 2243 충주 3261 제천 2835 천안 3314 안동 44 평택 73
振替口座 서 울 5 8 1番

PHOTOGRAPHIC EXHIBITION

현대를 사는 인간들은 남을 위해 심아주도록 강요받는다. 거대한 사회조직속에 현대인은 자신의 생활에 입바만큼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러나 현대의 삶을 괴롭힘고 저주하며 원대로움 짓이다. 그러나 여기 끊임없 해상에 몸보라을 싣 요키며 스릴드와 드릴을 한 순간이 있다.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한 여름의 태양아래 구리빛 살결을 자랑하는 그는 저금 한 줄기 생의 희열에 도취하는 것이다.

문단에 활약중인 외대인

외대문단의 현황과 진로

□필자소개□
오프랑스의과 5회졸·시인
현재동아일보 정치부기자

강 인 섭

「문단에서 활약 중인 동문」이라는 시리즈를 읽으면서 여기에 등장되는 작가가 몇명이나 필정인지궁주목해온 필자로서는 막상 7회로서 이 기획물이 끝난것을 보고 외대출신 작가의 수가 무척 적다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계획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중견작가도 대리 있는 줄 압지만 기억에 남는 이름을 모두 떠올려 보아도 열 손가락을 다꼐 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문단에서 활약중인 작가로 보아야 하느냐는 논의는 차치하고 어기 등장된 작가의 거의전부가 공인된 동문들을 거쳐 현재 문단에서 차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른바 기성작가에 속함직하고로 믿고 있다.

외대가 문단에 작가를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4·19의명 7월로서 이 기획물이 끝난것을 보고 외대출신 작가의 수가 무척 적다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계획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중견작가도 대리 있는 줄 압지만 기억에 남는 이름을 모두 떠올려 보아도 열 손가락을 다꼐 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문단에서 활약중인 작가로 보아야 하느냐는 논의는 차치하고 어기 등장된 작가의 거의전부가 공인된 동문들을 거쳐 현재 문단에서 차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른바 기성작가에 속함직하고로 믿고 있다.

외대가 문단에 작가를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4·19의명 7월로서 이 기획물이 끝난것을 보고 외대출신 작가의 수가 무척 적다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계획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중견작가도 대리 있는 줄 압지만 기억에 남는 이름을 모두 떠올려 보아도 열 손가락을 다꼐 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따른 진실과 지식의 내용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것만으로 만계를 대신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한다.

진실과 지식

홍 종 율 (표양과정부 철학강사)

우리가<인생에있어서 최상의 것은 무엇이냐?>가는 물음을 제기한다면 마양한 응답들이 나타나리라고 짐작된다. 사신 한 인간이 처 (處) 하여있는 위치나 입장에 따라 또는그 인간의 의식수준에따라 상이한 해답들이 주어질 것이다.

특따르고 골주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음식>이, 중병이나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건강>이, 욕체적 쾌락을 욕망하는 사람에게는<주색>이, 빈곤의 상황에서 억압받고있는 사람들 혹은 폭육에는 민인간에게있어서는<재물>이, 정복욕과 지배욕에 빠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권기와 권력>이, 삭식적 세속적인 편집을 경시하며, 초월적인 편집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신앙>이, 논부신적, 관란한 것, 위대한것을 창조하는 시인예술가들에 있어서는<관하여음>이, 더럽고 사악한편심을 바르게 선하게 거조하고변혁하려는 사람에게있어서는<도덕과 법>이, 이상향의 세계를 지향하는숭고한 마음의 소유자에게있어서는<사랑>이, 작자 주장되어집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해답들이외에도 다른 대답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있을것이다. 그러한 가능한해답들중에서 빠놓을수 없는 답을 당장 고를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지식>일 것이다. 지식이라는 말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진리 탐구로 대치할수도 있을것이다. 지식의 힘이 인생에 게주는바 그영향력과 효과를 인지하는한 그러한 해답도 어느정도 근사하게 짐작할수 있을듯 싶다.

그러나 그누구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앞에서 주어진 답변과는 질적으로그와는 다른 답을 하고자 한다. 나는 분명히 말할것이다. <인생에있어서 최상의 것은 진실이다>라고.

그러면 앞에서 무어진에 관가지 답들은 저마다 인생의 무대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있기때문에 그이는것 하나도 절만하고 관전한 인생을 취하지 무시해서는 안될것이다. 가장 관전고 자유로운 인생을위해서는 앞에서 주어진답에 관가지 답들은 인생을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가장관전고 자유로운 인생을위해서는 앞에서 주어진답에 관가지 답들은 인생을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진실과 지식의 관계성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우리는 앞에서와 같이지식의 관계성의 가치를 일마아무리 불확무하한 사람도 지식의 힘의 광대성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관전하고 있는것에 지식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가르치는것과 배우는것이 있어왔던것을 알고 있거나와 사람으로 태어나 자는 그 누구나 지식의 전, 학교로 가는 길을 원하는 법이다.

4

우리는 앞에서와 같이지식의 관계성의 가치를 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식의 시선을 밝리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게된다.

슬픔과 고통의 근원으로서의 지식, 비참과 불행의 원인으로서의 절망과 비극의 절망의 원인으로서의 지식이 인생의 무대에서 짙게 지고 있는 바로 그 사태이다.

인생을 파악시키고 냉방시키는 힘이 바로 지식일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는 한 지식에로의무한의 굳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 이지적인 중요성을 거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게된다.

그렇다면 지식을 조종할수 있는 , 보다 근원적인 힘, 그것은 무엇인가?지식보다 더 높은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지식의 한계에 부딪치면 오히려 지기 피는 바 신앙이란 이름의 그 힘이 바로 그것인가? 아니다. 신앙이란 말은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신앙을 말한다면 어떤 신앙, 혹은 신앙의 내용이 문제되는 아직 모자라고 못생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그것은 한마디로 진실이다. 진실! 진실? 진실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5

진실이란 무엇인가? 진실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고싶어 아무리 묻고도 물어도 진실의 내용을 밝히나 묻지도는 표현할수 없다. 진실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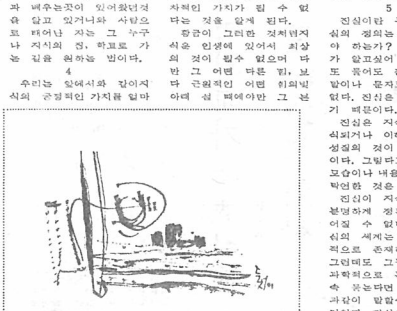
진실은 지식에 의하여인식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진실의 모습이나 내용이 애매하거나 막연한 것은 결때이다.

진실이 지식의 세계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다하더라도 진실의 세계는 확실히 실제적으로 존재하기때문이다.

그럼데도 그누구가 저꾸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게속 묻는다면 우리는 다음과같이 말할수 밖에 없을것이다. 진실을 스스로 느끼면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진실의 미나 그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함으로하는 것이다. 진실을 깨우한 마음과 아름다운 영혼의 두 전제조건이다.

마음이 제꾸한 인간, 영혼이 아름다운 인간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느끼면서 안다. 진실한 인간은 진실을 부끄럽이 지식의대상으로 삼으려하지않는다.

진실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는가? 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는가? 그것은 인간을 무한한 편심을 신심 신성(神性) 한 편심



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 순간 우리의 시선을 밝리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게된다.

슬픔과 고통의 근원으로서의 지식, 비참과 불행의 원인으로서의 절망과 비극의 절망의 원인으로서의 지식이 인생의 무대에서 짙게 지고 있는 바로 그 사태이다.

인생을 파악시키고 냉방시키는 힘이 바로 지식일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는 한 지식에로의무한의 굳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 이지적인 중요성을 거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게된다.

그렇다면 지식을 조종할수 있는 , 보다 근원적인 힘, 그것은 무엇인가?지식보다 더 높은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지식의 한계에 부딪치면 오히려 지기 피는 바 신앙이란 이름의 그 힘이 바로 그것인가? 아니다. 신앙이란 말은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신앙을 말한다면 어떤 신앙, 혹은 신앙의 내용이 문제되는 아직 모자라고 못생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그것은 한마디로 진실이다. 진실! 진실? 진실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5

진실이란 무엇인가? 진실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고싶어 아무리 묻고도 물어도 진실의 내용을 밝리나 묻지도는 표현할수 없다. 진실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은 지식에 의하여인식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진실의 모습이나 내용이 애매하거나 막연한 것은 결때이다.

진실이 지식의 세계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다하더라도 진실의 세계는 확실히 실제적으로 존재하기때문이다.

그럼데도 그누구가 저꾸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게속 묻는다면 우리는 다음과같이 말할수 밖에 없을것이다. 진실을 스스로 느끼면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진실의 미나 그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함으로하는 것이다. 진실을 깨우한 마음과 아름다운 영혼의 두 전제조건이다.

마음이 제꾸한 인간, 영혼이 아름다운 인간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느끼면서 안다. 진실한 인간은 진실을 부끄럽이 지식의대상으로 삼으려하지않는다.

진실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는가? 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는가? 그것은 인간을 무한한 편심 신심 신성(神性) 한 편심

문화단신

○…YMCA대학생부에서는 12일 19일 양일간 농촌 봉사활동을 위한 자선의 밤을 명동반 장방에서 갖는고 하는데 하오 6시에 이 자리는 이 모임에서는 자선음악회와 두도회가 벌즌하여 예정이라고.

○…한국 미술가 협회는 오는 가을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5회 스페인 비에날레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공모응募종 회화, 조화3점, 조각 2점 입체1점임데, 7월28일부터 29일까지 국립 현대미술관에 출품료 2점당 금 천두이어 출품하고 바란다고.

공모회원 7월31일에서 8월14일까지 접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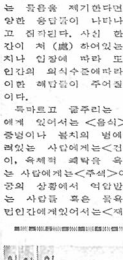
○…시인이며 공예가인 장윤주씨의 작품전이 7월17일부터 20일 명경 주재관 보관에서 열린다.

공예에 시를 접들인 이 작품전에는 자화상을 비롯해 21점이 출품된다.

'도서관 신착도서안내'

①무역전계법규집 (공한권)
②1972 Korean trade director
③신생국의 정정제도 (148호)
④Image de la coée
⑤미국의 대라인 아메리카 정책
⑥신탁과 신고
⑦상경논총
⑧이라윤흐기의 종언
⑨원고 이야기
⑩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관결」에 관하여
⑪미한민국출판물 총목록
⑫주요국외주택금융제도 (입법참고 자료 제149호)
⑬각국의공무원제도 (154호)
⑭꼰아논총 (사회과학편)
⑮ 〃 (인문과학편)
⑯ 〃 (자연과학편)
⑰Economic development plan 1972~1976
⑱세계사전편

펀 자우



교 지 평

포지부터가 신선하다. 외대의 이미지를 잘 부각시켰고, 특색있 편집, 그 내 용도 성심하게써여졌다.

지난 6월에 이 해 질과 양적인면에서 많은 진보를 보여주었다. 특히 화보의 게임세있는 백열과 폭집1회생게운학의 제전, 타 임과시대의 전국등은 면수 풍보이게 한다.

또한 번역문단에 있어, 작국의문학을 소개한학생들 송으로 번역, 14개 외국어에 걸쳐 거의 게재하게끔 한 것은 편집자의 노고가 너무나 분명한 이치이다.

6

지식은 인간에게 많은정을 약속해준다. 지식을 부끄럼없이 보라. 높은 인간를 명을 위해, 보다 가치있는삶을 위해 심체적으로 갈 인간, 보다 치에있는 편심이 인간이다. 분명히 사회에서 밝혀스러운 생활을 연계가지나 지식의 발견에 의한 지식의 도움에 의해 가능한 인이다.

지식의 획득, 지식의 발국, 그것은 인간의 해방과 행생들의 여기만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남자는 지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삶을 인지식 받아야 한다.

그러면인 삶과 고차원인 명을 위해서 지식의 탐구원 게우는 것 인에서 조종하는 지식혁인 나그베라하더라도, 진실의 항국을 단한 순간이라도 방라해서는 안, 진실을 모르는 생 진실을 잃어버린 인생처럼 가엾고도 억울한 인생은 또 없다고.

한 나절을 서성이던 며칠만. 기타리들이 하얗게 표백되어 흩어지고 넘쳐의속삭임이 꽃을 피우는 밤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밀쳐 버리고 싶은 카만 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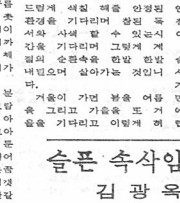
인문의 나이테가 늘어 갈수록 공과세치의 색갈은누렇게 퇴색해 가고 벼마콘가슴엔 허무만 깊어 가는데 오랫만에 바람속을 나부하며 네리는 빗방울보니 이런 기타소리가 섬레어 옵니다. 좋은 가슴 속에는 제그리 생삭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유 모를 슬픔과 노여움 기타리가 고독이 그리워는 심자로에서 방상 휘 구름도는 곧없는 하늘가를 촛점 잃은 눈동자로 헤매이던 그 슬픈 세월은 내가 질한 가슴 위에 허무와 체념만을 남겨 주고 흘러가 버렸읍니다.

심레이던 보라빛 꿈과 분홍빛 그리움도 삶의 보람도 모래성같이 바스러진 아픔에 모든것을 주워 모아 방자와 피안길에 버려 둔지 오래인데 이밤엔 잃어진 꿈의 조각들이 고운꿈을 한 아름씩 안고 벼개가에 소곳이 쌓일 것만같습니다. 어쩌면 세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잃어진 아픔 모습이 어디선가 나를 찾아 이 비에는 거기를 헤매일것만 같읍니다.

비내리는 이밤 나는 누군가 올 것만 같은 심레임을 안고 창가를 서성입니다. 기타리을 삼키며 지부는 한간 벽지속의 하루 하루, 그것은 하얀 기타리이 오열속에 누렇게 일록 져 버리는 슬픈 기타리의 삶에 애슨 날 이합니다.

방황하는 내 서려운 가슴속에 흐뭇한 정과 미화를 심어줄 이를 기다리며 내 가난한 마음을 곱고부드럽게 세심 해줄 인정된 환경을 기다리며 삶의 독서와 사색 할 수 있는시간을 기다리며 그렇게 계절의 순환속을 한발 한발 내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을 여름을 그리고 가을을 또 거울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 맞을 기다림이라도 있기에 나는 슬서러 넘을보며 퇴색해 가는 꿈을 버리지않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조수가 밀려 나간 해변가에 버려진 소라처럼 고독에 시달리며 비 뿌리는 한밤 중심에서 타 내린 비스속같이 허탈한마음과 박차로 내린 손바닥같이 잔뫼를 입고 방황하는 내게 무엇인가 지표로 삼고 살아 갈 만한 자신이 없기에 내 가난한 마음 속을 피웠던 기쁨과 허방만 기타림이 하나 가득할 뿐입니다. 어쩌면 기타림들이여 무 갚기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려나 봅니다.

꿈일이 비가 내리는 이밤 고독이 무엇인지 새삼 저려오고 무엇인가 들려올것만 같은 하만 창가에서 정다운 미화를 듣고 싶음니다. 허지만 그아무도 내 가슴에 내렸에도 없는 나이기에 먼 돗날을위해 두손가슴에 가즈런히 모으고 하안 소정들의 속삭임을, 한창을 이 가슴 가득히 담아 두렵니다.

슈즈 체년과 벼마콘 한 슬일랑 저 빗방울속에 잠시 잠겨 들어 두고 나의 기타림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이밤을 환한 속삭임에 나혼자 귀를 기울어보 렵니다.

슬픈 속삭임

김 광 옥 (베트남어과2년)

時事英語研究 8월호 값 300원

級光韓国의 文化財
英文案内가 이제 도 좋은가
제2회 顧忠銅·德喜宮

인터뷰:「美·蘇」 모스크바 頂上会談 이후의 世界情勢·
(西獨) Klaus Mehnert (佛) Michel Tatu (英) Malcolm Mackintosh (日) Shintaro Hukushima
□ 美·蘇共同 콤뮤니케 全文 (Communique on the Moscow Summit)
頂上會談을 앞두고
□ 크레믈린을 누빈 勢力 다툼 (Power Game in the Kremlin/by Victor Zorza)
□ 맨스필드 上院議員이 보고온 「오늘의 中共」 (Inside Red China Today)

MEN & IDEAS 소련共産黨書記長「Leonid I. Brezhnev 論」
★ 映画台詞 ★ 파리는 안개에 젖어

▶현대를 필요에 따라 부수해 낼 수 있는 묘한 世界 (Grave New World/Caryl Rivers)
▶독서는 처벌 받지 않은 죄악 (That Unpunished Vice, the Reading/ Cyril Conelly)

■3大 英語試驗問題
第10回 貿易英語檢定試驗問題 (1, 2, 3級)
時事英語社 編輯社員 採用試驗問題 ····
就職試驗 英語摩擦問題 · · · · · · · ·

英語교육방법 / 김한근, 이계순, 황찬호
TOEFL / 英作文 / 소설의 慣用表現
Thomas Settle의 「李 箱」論

英語世界 8월호 값 220원

□ 科學文明 제2의 創世紀: 콤퓨터 理想鄕 Computopia (=Computer+Utopia)
□ 男性에 도전하는 女性의 優越論戰—始와 末 Sex and Equality / by Cecil Osborne
□ 世界 最高의 權府: 백악관의 神秘룸 벗긴다 The Magic of the White House
□ 數學的으로 풀어본 「成功」의 論理性 Your Success Mechanism / by Maxwell Maltz

Windsor公의 世紀的 romance
英國 No. 1 man들의 休養地
19세기 동운아 Byron의 私生活
英國은 最後進 先進国
만신을 낳은 自慢—India 野談

短篇 / by Lafcadio Hearn
The Boy Who Drew Cats
英詩 / by John Donne
Lovers' Infiniteness外 1篇
Classical Music—Gounod의 Faust
Pop Song—I Love You Dear外 3篇

ENGLISH 900
英語會話 레코오드

900개의 基本文만 익히면 英語會話 만능을 보장 해주는
美 國務省 위촉 言語學者들이 공동개발한 혁신적새방법

美國務省承下
ENGLISH LANGUAGE SERVICES 原著·提書
THE MACMILLAN CO. 發行
時事英語社 韓國內版權
獨占所有 無斷複製 禁止
文化公報部 外國音盤
複寫許可 제3호
音盤保護用 styropore
高級包裝
時事英語社
배달주문 ㉔ 2974~5

全 6 卷 發 賣 中

ENGLISH 900 Book 1 基礎英語會話	LP 10매 / Text · 주해서 附
ENGLISH 900 Book 2 初級英語會話	LP 10매 / Text · 주해서 附
ENGLISH 900 Book 3 中級英語會話	LP 10매 / Text · 주해서 附
ENGLISH 900 Book 4 高級英語會話(上)	LP 10매 / Text · 주해서 附
ENGLISH 900 Book 5 高級英語會話(中)	LP 10매 / Text · 주해서 附
ENGLISH 900 Book 6 高級英語會話(下)	LP 10매 / Text · 주해서 附

各卷 定價 10,000원 · 3개월 割賦

時事英語社編
第二外國語씨리이즈
7월 20일 全国一斉発売!
日本서 직접 録音吹込 (佛·소르본느大學 日本語教材를 녹음 韓日最高專門家들이 合作한 權威있는 会話書 第一卷入門篇/第二卷活用篇/카세트도 同時発売)
現代 日本語会話 레코오드
LP 20枚